2011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금융서비스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세계 주요 투자기업

- 중국은행(Bank of China)
- 뉴욕멜론은행 (Bank of New York Mellon)
-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
- BNP 파리바스(BNP Paribas)
-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턴 (Crédit Suisse First Boston)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 HSBC
- ICIC은행(ICICI Bank)
-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ING
- 리버티 뮤추얼그룹 (Liberty Mutual Group)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 메릴린치(Merrill Lynch)
- UBS AG

캐나다 선도기업

- BMO 파이낸셜그룹 (BMO Financial Group)
- 스코샤은행(Scotiabank)
- 캐나다임페리얼 상업은행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 데자딘(Desjardins)
- 그레이트웨스트 라이프코 (Great-West Lifeco Inc.)
- IGM파이낸셜(IGM Financial)
-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Manulife Financial)
- 캐나다내셔널은행 (National Bank of Canada)
- 캐나다로열은행 (Royal Bank of Canada)
- 선라이프 파이낸셜(Sun Life Financial)
- TD그룹 파이낸셜서비스 (TD Group Financial Services)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에이펙스 펀드서비스(APEX Fund Services Ltd.)

2010년 9월 버뮤다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 펀드서비스는 토론토에 캐나다 사무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자사의 북미 펀드운용 서비스와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에이펙스 펀드서비스 보도자료, "에이펙스펀드서비스, 토론토 사무소 개설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 목표," 2010년 9월 29일)

맥쿼리 프라이빗 웰스(Macquarie Private Wealth Inc.)

2010년 6월 맥쿼리 프라이빗 웰스는 향후 3년간 캐나다 내 사업규모를 두 배로 늘려 자산을 160억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첫해 안에 최고 수준의 금융 전문가 20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 이미 최고 전문가 25명을 추가하여 총 155명의 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출처: 로이터통신(Reuters.com), "맥쿼리 프라이빗 웰스, 캐나다 자산 두 배 확대 목표," 2010년 6월 15일)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뉴욕멜론은행은 2010년 6월 토론토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캐나다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뉴욕멜론은행 보도자료, "BNY 멜론, 토론토 I(3) 웰스어드바이저스(I(3) Wealth Advisors) 매입 완료," 2010년 9월 1일)

월마트(Walmart)

월마트 스토어는 2010년 6월 캐나다에 은행을 설립하여 제2금융기관(Schedule II bank)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월마트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서비스와 더불어 예금계좌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출처: Business2Press.com, "월마트 6월 15일부터 캐나다 내 은행서비스 제공 시작," 2010년 6월 5일)

M&T은행(M&T Bank)

뉴욕 버팔로에 본사를 둔 M&T은행은 2010년 6월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으로부터 캐나다 내 상업은행 사무소 개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었다. M&T의 토론토 지점은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상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M&T은행 보도자료, "M&T은행, 캐나다 상업은행 지점 개설 승인 얻어," 2010년 6월 7일)

JP모건(J.P. Morgan)

2010년 4월 JP모건은 캐나다 에너지투자은행(Canadian Energy Investment Banking) 책임자로 데이비드 해리슨(David Harrison)을 영입한 데 이어 자사의 투자은행 사업을 캐나다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해리슨은 캘거리 사업장을 기반으로 JP모건의 캐나다 내 에너지 독점사업권 구축을 책임질 전망이다. (출처: 글로브 앤드 메일(The Globe and Mail), "JP모건 캘거리 진출," 2010년 4월 5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캐나다 금융서비스 산업: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등공신

캐나다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이 분야의 고용인력은 112만 명을 넘어서고,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중 815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은행, 신탁 및 대부 회사, 생명, 건강, 재산, 상해 보험회사, 신용조합, 증권회사, 금융리스회사, 연기금 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회사, 독립 보험 대행사 및 중개사 등을 포괄한다.

은행업: 세계경제포럼(WEF)의 2010~2011 국가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3년 연속으로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또한 지난 2년간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을 세계 1위로 평가했다.

규제환경: 캐나다는 금융부문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규제환경을 갖춘 나라 중 하나로서 해당 분야의 모범사례를 다수 제공한다. 기업들이 자신 있게 투자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큼 건실하고 안정적인 금융 기관과 시장, 금융 인프라, 관리체계를 자랑한다.

핵심자본(tier-1)의 종착지: 캐나다는 전 세계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며 가치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세계적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다. 시장 성숙도와 가용성, 확장성, 친숙성을 두루 갖춘 캐나다 역내 사업을 통해 광범위한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장 리더십: 캐나다는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수 경영대학원들이 있으며, 업계는 리스크 관리 연구 및 교육에 있어 세계적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기업들은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 경영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력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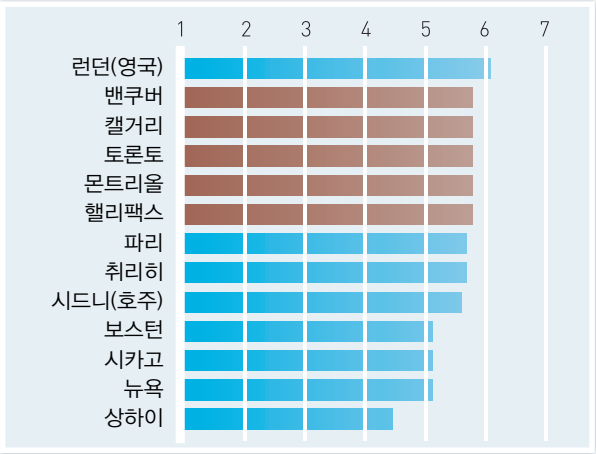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 소유권 규정에 있어 캐나다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외국인 소유권 규정은 다른 대다수 국가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핼리팩스 등의 캐나다 도시들이 런던이나 파리, 취리히 못지 않게 투자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관련법을 일부 개정했다. 단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는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즉,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도표에서 1점은 외국인의 기업 소유 사례가 '드물고 제한적'임을 나타내고 7점은 '일반적이고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 소유권 제한 수준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2010 연두 국정연설(캐나다 연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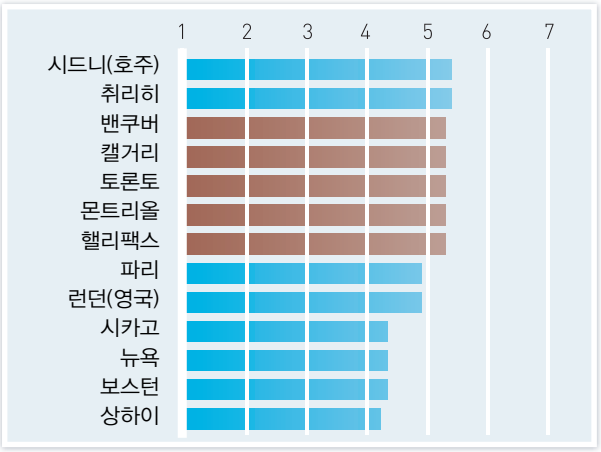
장점:

합리적인 사법체계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연방 정부는 은행업, 국제무역, 지식재산 관련 사안 등 국가 차원의 법적 문제를, 주정부는 사유재산과 상업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처리한다.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퀘벡주의 경우 민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체계를 적용한다.

▶ 이 도표는 민간기업 관련 분쟁 해결 시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으로, 1점은 법체계가 '매우 비효율적'임을, 7점은 '매우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사법체계의 효율성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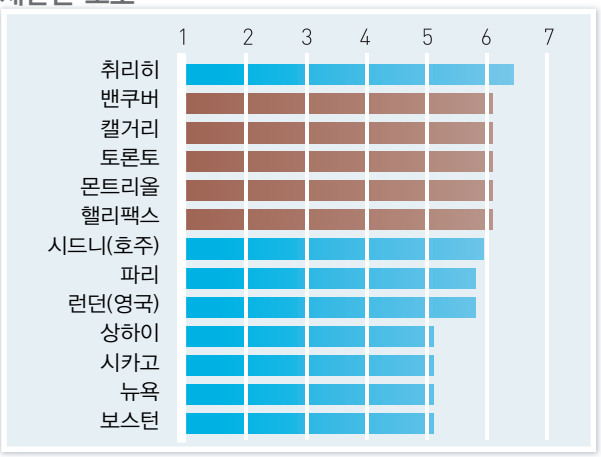
장점:

철저한 재산권 보호

캐나다에는 물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보다도 그 보호 수준이 더 우수하다.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0 국제 재산권 지수(IPRI)에서 캐나다는 독일, 아일랜드와 함께 12위를 차지하며 15위를 기록한 미국을 앞질렀다. 또한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물적 재산 보호 항목에서 점수가 상승하면서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했다. 대출 용이성,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기타 요소들 역시 IPRI 연례 지수 순위의 고려대상이다.

▶ 이 도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1점은 보호 수준이 '매우 낮음'을, 7점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재산권 보호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프론티어 공공정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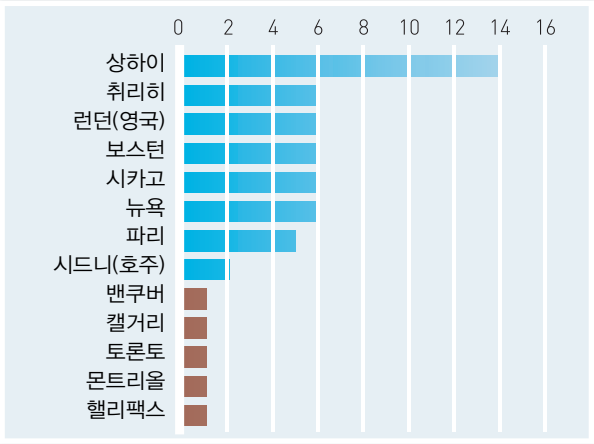
장점:

간단한 사업등록 절차

캐나다에서 투자자들이 사업등록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는 한 단계뿐이다. 해당 연방당국이나 지역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상호를 등록하면 된다. 법적 지위를 얻은 사업체는 활동지역을 소관하고 관련 세법과 노동법을 적용하는 규제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 이 도표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업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수를 보여준다.

사업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수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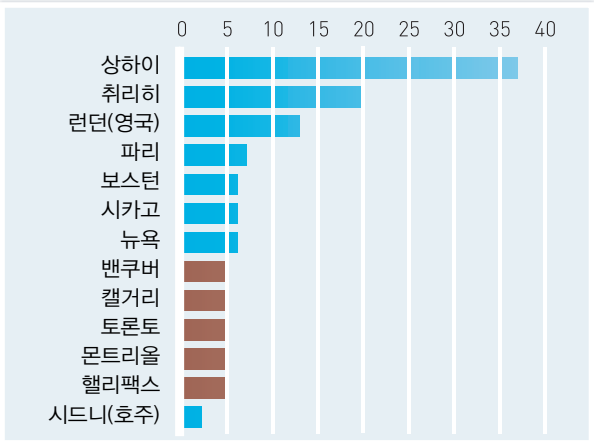
장점:

신속한 사업 등록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사업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로, 이는 뉴욕,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에 반해,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 런던에서의 사업등록 소요기간은 평균 두 배에 달하고 상하이의 경우는 일곱 배를 넘어선다.

▶ 이 도표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업등록을 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일수를 보여준다.

사업등록을 위한 소요일수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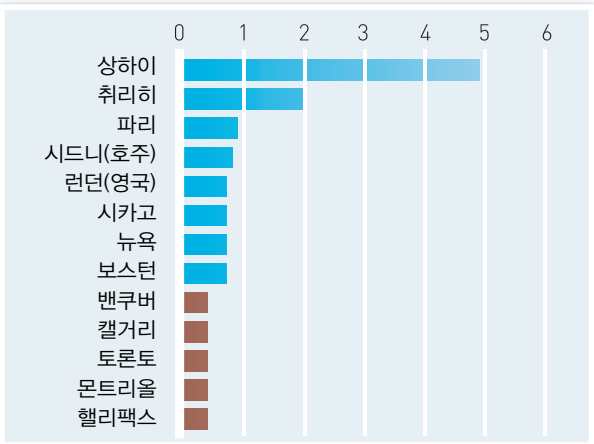
장점:

낮은 창업 비용

캐나다 내 창업비용은 상당히 낮아 유럽, 미국, 호주 도시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기업세율이 낮은 동시에 G7 국가 중 지불급여세가 가장 낮다.

▶ 이 도표는 창업 절차에 정식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을 보여준다. 0점부터 6점까지의 척도는 창업비용을 일인당 소득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창업 비용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캐나다의 금융산업: 개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의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며 밴쿠버가 세계의 상업적 관문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도시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매년 32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한다.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러한 신흥시장과의 긴밀한 문화적 연계와 함께 밴쿠버 금융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영국의 HSBC, 캐나다중앙은행(BOC), 인도국립은행(SBI), BASF파이낸스캐나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MFG)의 캐나다 본사를 포함해 몇몇 국제은행의 사무소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밴쿠버는 전세계 탐사사업을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자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글로벌 허브로 인정받고 있다.[1]

앨버타주

캘거리는 캐나다 서부의 비즈니스 중심지이며, 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의 본사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준다.[2] 최근 캘거리에 설립되었거나 이곳까지 사업을 확장한 금융서비스 기업에는 글로벌스페셜리스크(Global Special Risks), 스코틀랜드로열은행(RBS), 시티그룹(Citigroup), ICICI은행, 중국공상은행(ICBC)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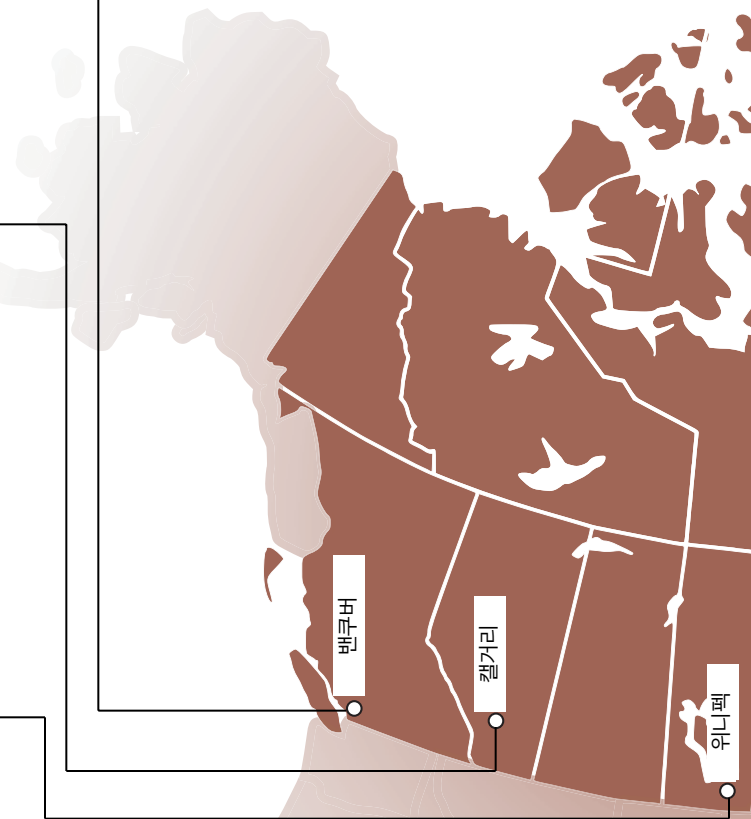
2006년 캘거리는 경제개발 10년 전략을 출범시켰으며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캘거리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것이다. 캘거리는 기존에 에너지 분야의 자본 흐름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자본 가용성과 전문지식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자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캘거리의 금융서비스 분야는 다양한 다국적 소매 은행과 투자기업, 증권 중개소, 신탁회사, 신용조합, 주택융자회사를 비롯해 보험회사와 대리점, 중개소, 사정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마니토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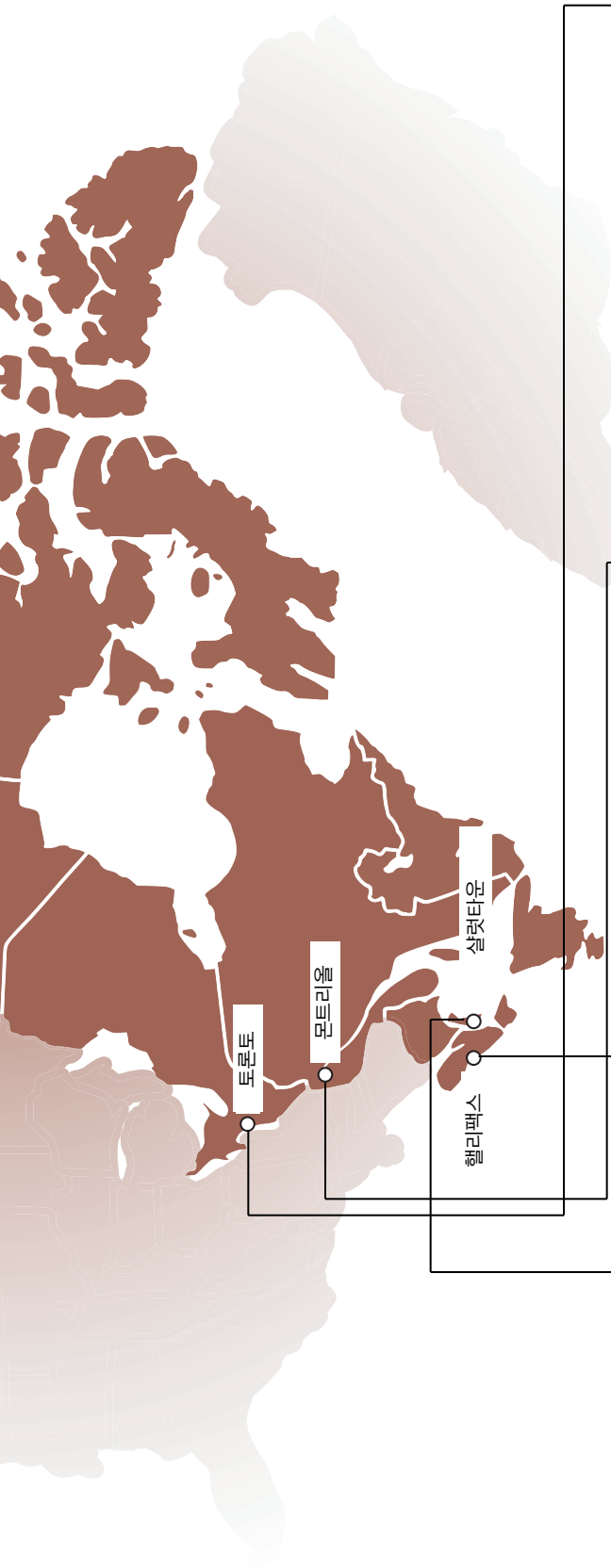
마니토바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약 20,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모든 대형 상업은행과 일부 소규모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세 곳이 마니토바주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61개 신용조합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주 전역에 108개의 투자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이 기업들은 모두 마니토바 증권위원회(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에서 허가를 받은 곳이다.

마니토바의 생명보험사들은 캐나다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원이다. 마니토바주에는 캐나다 최대 보험회사인 그레이트웨스트 생명보험(Great-West Life Assurance Co.)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세 곳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밖에도 9개의 재산 · 상해 보험사가 마니토바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위니펙에 본사를 둔 IGM파이낸셜(IGM Financial Inc.)은 캐나다 최대 뮤추얼펀드사로서 제3자 펀드와 자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위니펙에 자리 잡은 내셔널 리싱그룹(National Leasing Group Inc.) 역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독립 리스회사이다.[3]



[1]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밴쿠버. 2010년 10월 14일.
[2]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캘거리. 2010년 10월 14일.
[3]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위니펙. 2010년 10월 14일.



온타리오주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는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 중심지이자 캐나다의 금융서비스 산업 수도로 22만 3,000명이 넘는 고용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서비스 중심지이자 수많은 세계적 기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그 밖에 토론토가 자랑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10대 생명보험사 중 2곳
- 세계 50대 은행 중 5곳
- 북미에서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규모의 증권거래소
- 전세계 100대 연금펀드 중 4개
- 글로벌 10대 헤지펀드 관리회사 중 7곳

토론토의 금융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수한 노동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탄탄한 토대와 더불어 법, 회계, 기술분야 등의 풍부한 지원 서비스이다. 토론토의 주요 강점에는 고급 기술인력 지원과 행정, 서비스 운영을 비롯해 채광, 금속, 에너지, 청정기술 산업 등이 있다.[4]

퀘벡주

몬트리올은 파생상품과 원자재 거래, 자산관리, 연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앞선 전문지식으로 유명하다. 3,000개 이상의 기업과 10만 명이 넘는 고용인력을 보유한 몬트리올의 역동적인 금융서비스 산업은 빠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120여 개이며 이들의 자산 합계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2010년 3월에 발표된 국제금융센터보고서(Global Financial Centres Report)의 세계 유수 금융 센터 목록에서 몬트리올은 75개 도시 중 26위를 차지했다.

또한 몬트리올은 국제 금융거래 전문기업과 합명회사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금융센터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R&D 측면에서 보면, 파생상품 및 연기금 관리, 수리금융과 전산금융, 금융공학 등의 분야와 관련된 30개의 학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5]

노바스코샤주

노바스코샤의 금융서비스와 보험 산업은 2006년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시트코펀드 서비스(Citco Fund Services), 마시캡티브 솔루션(Marsh Captive Solutions), 플래그스톤 매니지먼트서비스(Flagstone Management Services) 등의 국제적 대기업들이 **핼리팩스**에 백오피스와 미들오피스 시설을 설립했다. 그 밖에도 핼리팩스는 14,000명에 달하는 금융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바스코샤주 전역에는 현재 약 7,000명의 학생이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6]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은행업, 뮤추얼펀드 운용, 고객관리, 헤지펀드 운용, 보험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다. 주도인 **샬럿타운**은 금융서비스 처리업무에 이상적인 도시로 이곳에는 2,700명의 인력을 고용한 15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여타 북미 도시들에 비해 샬럿타운은 금융서비스 기업들에게 임률과 공간비용 면에서 큰 절감효과를 제공한다.[7]

---

[4]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토론토. 2010년 10월 14일.
[5]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몬트리올. 2010년 10월 14일.
[6]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핼리팩스. 2010년 10월 14일.
[7] InvestInCanada.com: 금융서비스 · 샬럿타운. 2010년 10월 14일.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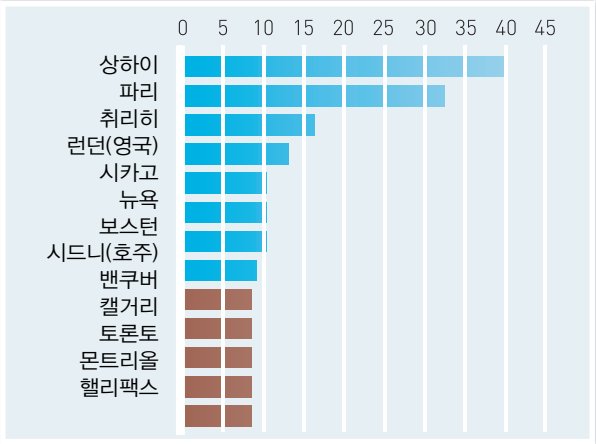
장점: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매우 훌륭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이 도표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기업의 분담금을 나타내며, 수치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



출처: fDi 벤치마크. 딜로이트인터내셔널, 국제 세금 및 사업 가이드(2009년 10월). 왓슨와이어트, 2009/2010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타워스 왓슨과 툴키트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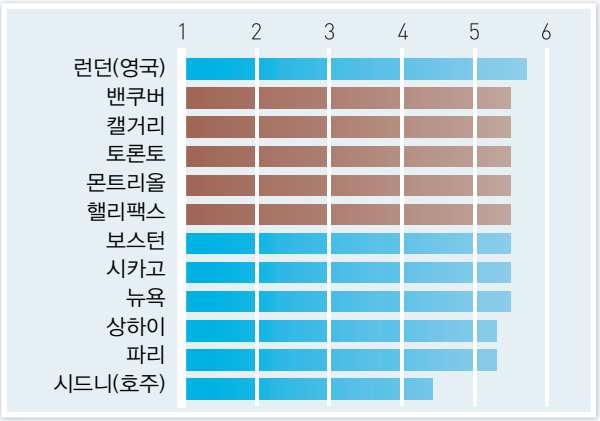
장점:

유연한 임금결정체계

캐나다의 임금결정 규제는 미국만큼이나 유연하여 개별 기업이 적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이 도표는 임금결정 면에서의 유연성을 평가한 것으로, 1점은 중앙집권적 교섭 절차를 통해 임금이 결정됨(유연성 최저)을 의미하고 6점은 각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것(유연성 최고)을 의미한다.

임금결정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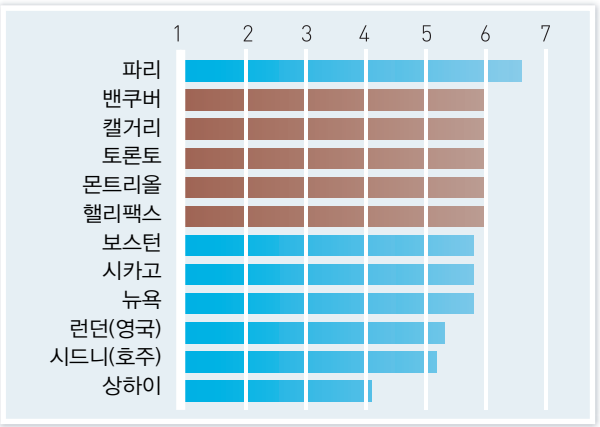
장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캐나다의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 공공 인프라는 도시와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캐나다의 도로와 교량, 철도, 항구, 공항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축과 관리 수준이 높고 안전하다.

▶ 이 도표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의 전반적 질을 평가한 것이다. 1점은 인프라의 개발수준이 '매우 낮음'을 뜻하고 7점은 '매우 높음'을 뜻한다.

인프라 전반의 질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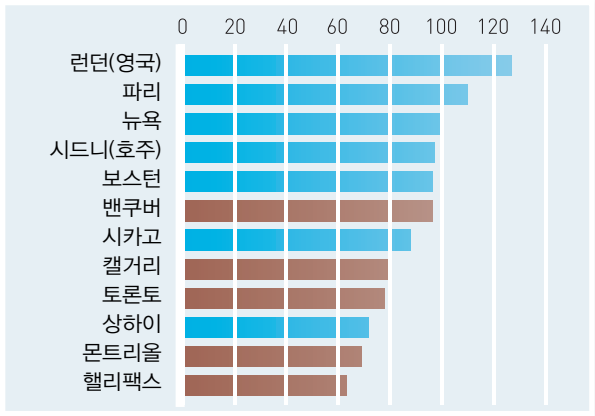
장점: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가령 뉴욕에 비해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핼리팩스는 더 낮은 생활비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고,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다음 도표는 뉴욕을 기준도시(가중치 100)로 보고 각 도시의 주거비 등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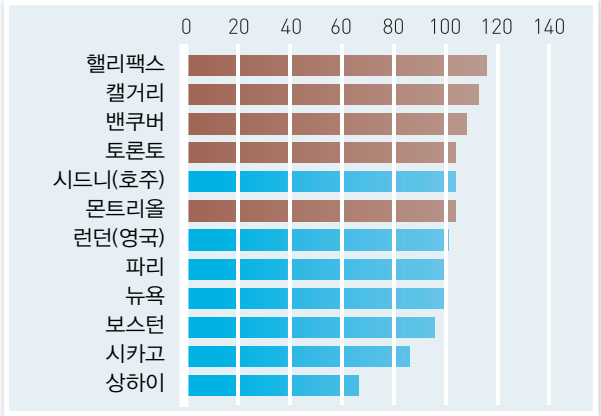
생활비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 다음 도표는 뉴욕을 기준도시(가중치 100)로 보고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삶의 질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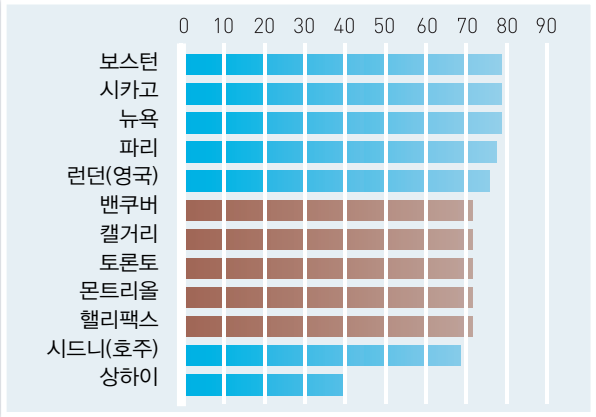
장점:

서비스 기반의 우수한 경제

전체 노동력의 75% 가량이 종사하고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캐나다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캐나다 서비스 산업은 소매,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보건,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나아가 금융서비스, 부동산,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이 도표는 각 도시의 GDP 대비 부가가치 서비스 성장률을 보여준다. 도 · 소매업과 교통, 그리고 교육, 보건의료, 부동산과 같은 정부, 금융, 전문, 개인 서비스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했다.

부가가치 서비스(GDP 대비 백분율)



출처: fDi 벤치마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2009년 2월).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2010년 7월).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2010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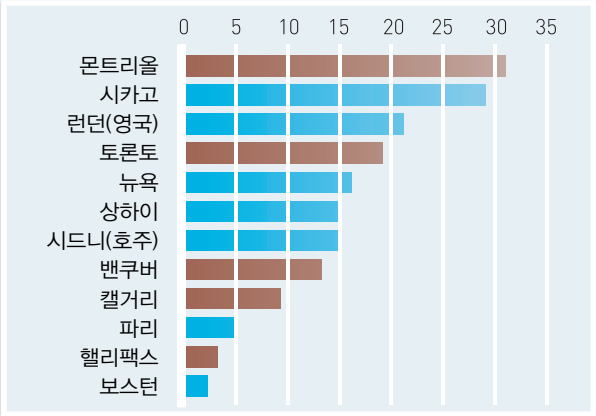
장점:

국제교육 프로그램

2009년 캐나다의 128개 고등학교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중등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125개 학교는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고등학교 수준의 IB 프로그램은 전세계 고등교육기관에의 입학을 돕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IB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도표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학교의 수와 초등과정 프로그램(PYP), 중등과정 프로그램(MYP), 디플로마 프로그램(DP) 등 이러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IB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각 도시를 평가한 것이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수



출처: fDi 벤치마크,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www.ibo.org)(2009년 10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2010년 11월).

세계 최고의 국제경영대학원 4개교를 보유한 캐나다

2010년도 순위	학교명	소재지	지수
1	인시아드(INSEAD)	프랑스 퐁텐블로	100
2	퀸즈대학 경영대학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97.3
3	IE경영대학원	스페인 마드리드	95.7
4	에사데(ESADE)경영대학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95.4
5	런던경영대학원	영국 런던	90.4
6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아이비(Ivey)경영대학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84.7
7	IMD경영대학원	스위스 로잔	83.3
8	토론토대학 로트먼(Rotman)경영대학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79
9	요크대학 슐리히(Schulich)경영대학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78.9
10	케임브리지대학 저지(Judge)경영대학원	영국 케임브리지	75.5

출처: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2010 최고의 국제경영대학원(2011년 1월)

투자지역 벤치마킹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한 전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 이 문서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캐나다 및 외국 도시들은 모두 주요 금융 중심지이다.
선정도시: 보스턴, 캘거리, 시카고, 핼리팩스, 런던, 몬트리올, 뉴욕, 파리, 상하이, 시드니, 토론토, 밴쿠버, 취리히

▶ 다음 기업 프로필은 직원 수 100명 이하의 도심 소재 금융서비스 센터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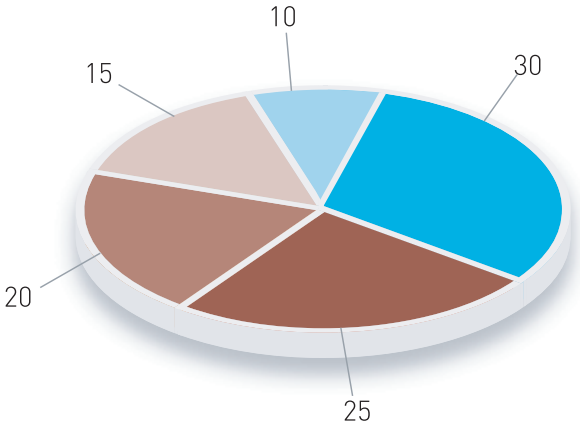
금융서비스/펀드관리 센터

건물	평방미터
총 사용면적 (시내 사무실)	4,000 m^2

통신	분
미국으로 건 국제전화	3,550,000

직원 유형	인원
일반관리	
부서 관리자	1
프로젝트 관리자	7
재무	
회계사	3
금융전문가	25
재무 및 행정 책임자	1
회계 보조	15
금융업무 보조	30
선임회계사	3
행정	
시설/사무소 서비스 전문가	1
비서	2
총인원	**88**

질적모형 / 가중치 적용



가중모형 개요	가중치
노동가용성과 질	30%
일반 사업환경	25%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20%
주거환경	15%
인프라 및 접근성	10%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의료 체계,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7-2011E
ISBN 978-1-100-18401-2